

경 희

一.

「아이구 무슨 장마가 그러케 심히요」

하며 담비를 붓치는 뽕々¹⁾한 마님¹⁾은 오리간만에 오신 사돈마님이다.

「그러게 말이지요 심한 장마에 아희들이 病이나 아니 낫습니까. 그 동안 하인도 한번도 못 보니셔요」

하며 마조 안져 담비를 붓치는 머리가 희끗々々하고 이마에 주름살이 두어 줄 보이는 마님은 이 李鐵原^{이철원}宅主人^{宅主人}마님이다.

「아이구 별 말씀을 다 하시니다. 나 역 그러셔요 아희들은 충실하나 어머님이 엇지 슈일 전부터 비가 압흐다고 하더니 오날은 이러나 다니는 거슬 보고 왔셔요」

「어지간이 날이 더워야지요 조금 잘못 하면 병 나기가 쉬워요 그리서 좀 걱정이 되섯겟습니까」

「인저 낫스니까요 먹음이 노여요 그런디 이기가 일본셔 와서 얼마나 반가우셔요」

하며 스돈 마님은 이젓든 거슬 쌈작 놀나 싱각하는 듯시 말을 한다.

「먼디다가 보니고 늘 먹음이 노이지 안타가 그리도 일년에 한 번식이라도 오니까 집안이 든々¹⁾히요」

主人마님 김부인은 담비더를 짓터리에다 탁々 친다.

1) 이 글에서 ‘마님’과 ‘마님’이 섞여 쓰이고 있다.

「그럼타 말다요 아들이라도 믿음 이 아니 노일 터인디 처녀를 그러흔 먼디 다 보너시고 그러치 안켓습니가. 그런디 몸이나 충실히했는지요」

「네 별 병은 아니 낫나 보아요 제 말은 아모 고생도 아니 된다 허나 어미 걱정 식힐가 보아 허는 말이지 그 좀 주리고 고생이 되엿겿서요 그리서 얼굴 이 써칠 히요」

허며 뒤것을 향하여 「아가 々々 서문 안사돈 마님이 너 보러 오섯다」 한다.
「네」

허는 경희는 지금 시원한 뒷마루에서 오리간만에 맛난 오라버니 덕과 안져서 오라버니 덕은 버선을 김고 경희는 안진 지붕틀에 즈고 오라버니 양복 속 적삼을 하며 일본서 지낼 썩에 어느날 어디를 가다가 함맞터러면 전차에 치울 번 헛드란 말 그리서 지금이라도 생각만 하면 몸이 아슬々々하다는 말이며 겨울기 오면 도모지 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업고 그리서 아침에 이러나면 다리가 쏙々 헛다는 말, 일본에는 하로 걸너 비가 오는 디 한번은 비가 심하게 퍼붓고 學校上學時間학교상학시간은 느껴서 그 굵 좁흔 나막신을 신고 부즈런히 가다가 너머져서 다리에 가죽이 버셔지고 우산이 모다 찌져지고 옷에 흙이 못어 엇지 붓그러웠섯는지 몰났섯드란 말, 學校에서 工夫하든 이야기, 길에 다니며 보든 이야기 쏙헤 마침 어느 썩 活動寫眞활동사진에서 보앗든 어느 兒孩가 아버지가 작난을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를 팔아 버릴냐고 광고를 써다가 제 집 門 밖 큰 나무에다가 붓쳤더니 그 썩 마참 그 兒孩만한 六七歲된 남미가 父母를 이리 버리고 彷徨하다가 쏙 두 푼 남은 돈을 쓰너들고 이 廣告디로 아버지를 살냐고 門을 두다리든 樣양을 半쯤 이야기하는 中이엿다. 오라버니덕은 어느듯 바누질을 무릅 우에다가 노코 「하々 허々」하며 滋味스럽게 듯고 안젓든 썩라. 「그리서 엇더케 되엿소」 못다가 눈쌀을 찡흐리며

「얼는 다녀오」 간절히 청을 한다.

엽헤 안져서 쌀니에 풀을 먹이며 熱心으로 듯고 안젓든 시월이도 혀를 툭々 찬다.

「암으렴 네 얼는 다녀오리다」

경희는 이레케 對答을 하고 제 이야기에 자미 잇서々 허는 것이 깃버서 우

스며 압마루로 간다.

경희는 사돈 마님 압혜 절을 謙遜겸손히 하며 인스를 엮주었다. 一年 동안이나 이져버렸든 절을 일전에 집에 到着할 썩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였다. 흠으로 이번에 한 절은 익숙하였다. 경희는 속으로 일본서 날마다 세루 가로 썩며 작난하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러케 암전하다 하며 우셨다.

「아이고 그 좃튼 얼굴이 었지면 저러케 못 되었니 오작 고성이 되었섯실나고」

사돈마님은 자비스러운 音聲음성으로 말을 한다 일부러 경희의 손목을 잡아 만졌다.

「썩 심흔 시집살이 한 손 갖고나. 女學生들 손은 비단결 갖다는데 네 손은 왜 이러냐」

「살性이 곱지 못히서 그리요」

경희는 고기를 칩으린다.

「제 손으로 빨니 히 입고 밥까지 히 먹었다니까 그러치요」

경희의 어머니는 담배를 다시 붓치며 말을 한다.

「저런 그러면 집에서다 아니 하든 거슬 깃지에 가서 하는구나. 네 일본학교 규칙은²⁾ 그러냐?」

사돈마님은 삼작 놀랐다. 경희는 아모 말 아니 한다.

「무얼요 제가 제 苦生을 사누라고 그러지요 그것 누가 식히면 하겠습니까. 學費학비도 넉넉이 보너 주지마는 기익은 별나게 밧분거시 자미라고 혼담니다」

김부인은 아모 썩 업시 어제 저녁에 자리 속에서 딸에게 드른 이야기를 한다.

「그건 왜 그리 고성을 하니」

사돈마님은 경희의 이마 우에 넘펄々々 내려온 머리카락을 두 귀 밧헤다 씨워주며 적삼 위로 등의 살도 만져보고 얼굴도 씨다듬어 준다.

「일본에는 겨울에도 불도 아니 썩인 더지 그리고 반찬은 감질이 나도록 조

2) 원문대로

곰 준디지 그것 엇지 사니?」

「네, 불은 아니 썩나 건디여 나면 관계치 안아요 반찬도 썩 먹을만치 주지 모저러거나 그러치는 아니 히요」

「그러자니 모도가 고성이지 그런디 네 형은 그동안 병이 나서 너를 못 보러 왔다. 아마 오날 저녁 썩은 올 터이지」

「네 좀 보너주셔요 발서부터 엇지 보고 심히는지 몰나요」

「암 그러치 너 왔다는 말을 듯고 나도 보고 심히 히엿는디 兄弟끼리 그러치 아니라」

이 마님은 원리 시집을 멀니 와서 부모 형테를 몹시 그리워 본 經驗이 잇는 터라. 이 말에는 김흔 同情이 나타난다.

「거괴를 쏘 가니? 인저 고만 곱게 입고 안져다가 富者 집으로 시집가서 아들 딸 낫코 자미드랍게 살지 그러케 고싱홀 것 무엇 잇나?」

아직 알지 못하야 그러케 하지 못하는 거슬 일너주는 것 갓히 경희에게 더 하야 말을 하다가 마조 안진 경희 어머니에게 눈을 向하야 「그러치 안소 니 말이 올치요」 하는 것 갓하다.

「네 하든 공부 맞칠 썩까지 가야지요」

「그거슨 그리 만히 히 무엇하니. 사니니 골을 간단 말이나? 郡主事라도 혼 단 말이나. 只今 世上에 사니도 비화 가지고 쓸 디가 업서々 썰々 밋는 디……」

이 마님은 여간 걱정스러워 아니 혼다. 그리고 디관철 계집이를 日本까지 보 니여 공부를 식히는 사돈 영감과 마님이며 쏘 그러케 비호면 디체 무엇허자는 것인지를 몰나 답々히 혼 적은 오리 전부터 잇스나 다른 집과 달나 사돈집 일 이라 속으로는 늘 「저 계집이를 누가 데려가나」 辱을 하면서도 할 수 잇는 디 로는 모른 체 하여 왔다가 오날 偶然우연히 조흔 期會에³⁾ 걱정히오든 것을 말흔 거실다.

경희는 이 마님 입에서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공부는 히서 무엇 하니」

3) 원문대로.

꼭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속으로 「올치 그럴 줄 알았지」 하였다. 그리고
 어제 오셨든 이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며 경희를 보실 썩 마다 걱정하시는 큰
 어머니 말씀과 모다 一致되는 것을 알았다. 또 昨年 여름에 듯던 말을 금년 여
 림에도 듯게 되었다. 경희의 입살은 간질々々 하였다. 「먹고 입고만 하는 거시
 사람이 아니라 비호고 알아야 사름이야요. 당신덕처럼 영감 아들간에 첩이 넷
 이나 잇는 것도 비호지 못흔 싸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흔
 죄이야요. 그러니까 녀편네가 시집 가서 시앗을 보지 안토록 한 것도 가라쳐
 야 하고 녀편네 두고 첩을 엮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라쳐야만 합니다。」 하고
 심헛섯다. 이외에 여러 가지 레를 들어 설명도 하고 심헛섯다. 그러나 이 마님
 입에서는 반드시 오날 아침에 다녀가신 할머니의 말씀과 갓흔 「애 넷날에는
 녀편네가 비호지 안아도 壽富貴多男수부귀다남 하고 잘 만 살아왔다. 녀편네는 東
 西南北도 몰나야 福이 만탄다. 애 工夫흔 女學生들도 버리 방아만 썰케 되더라.
 사ner가 첩 하나도 둘 줄 몰르면 그거시 사ner냐?」 하든 말씀과 갓히 꼭 이 마님
 도 할줄 알았다. 경희는 쇠 귀에 경을 읽지 하고 제 입만 압하고 저만 오날 저
 녀에 또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자게 될 거슬 생각하였다. 또 말만 시작하게 되면
 답々하여서 속이 불과 갓히 탈 것 즈연 오리 동안 되면 뒷마루에서는 기다릴
 것을 생각하여 차라리 일절 입을 담을었다. 더구나 이 마님은 입이 걸어서 한
 말을 드르면 열 말씀 그짓말을 봇티여 女學生의 말이라면 엇더튼지 흥만 보고
 욕만 하기로는 수단이 용흔 줄을 알았다. 그리서 이 마님 귀에는 좀체름흔 변
 명이라든지 설명도 조금도 고지가 들니지 안을 줄도 짐작하였다. 그리고 어느
 썩 경희의 형님이 경희더러 「애 우리 시어머니 압헤서는 아모 말도 하지마라.
 더구나 시집이야기는 일절 말아라. 女學生들은 예사로 시집 말들을 하더라. 아
 이구 망칙흔 세상도 만하라. 우리 자라날 썩는 어더가 처녀가 시집 말을 히보
 아 하신다 그 썩 아니라 여러 女學生 흠담을 어더 가서 그러케 듯고 오시는지
 듯고만 오시면 썩 나 드르라고 빗더노코 하신난 말씀이 정말 내 동생이 학성이
 여서 그런지 도모지 듯기 싣터라. 日本 가면 계집의 버리너니 별々 못 드를 말
 슴을 다 하신단다. 그러니 아모조록 말을 조심히라」 혼 付托부탁을 밧은 것도 있
 다. 경희는 또 이 마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가 보아 ㅁ음이 조릿々々 하였다.

그리셔 다른 말 시작되기 前에 뒷마루로 다라날라고 궁뎅이가 들석々々 하였
다.

「잇다가 급히 입을 오라범 속적삼을 하던 거시 잇셔々 가보아야겠습니다」
고 경희는 알튼 니가 빠진이나 만콰 시원하게 그 압홀 면하고 뒷마루로 나
서며 큰 숨을 한 번 쉬었다.

「왜 그리 느졌소? 그리셔 그 아버지를 엇더케 하소」

오라버니덕은 그 동안 버선 한 짝을 다 기워놋코 또 한 짝에 압벌을 더이다
가 경희를 보자 무릅 우에다가 놋코 밧삭 갓가이 안즈며 궁금하든 이야기 쫓출
치쳐 못난다. 경희의 눈쌀은 찻혀졌다. 두 뺨이 실죽히졌다. 시월이는 빨니를
지키다가 경희의 얼굴을 눈결에 실적 보고 눈치를 치었다.

「자근 아씨 셔문안덕 마님이 또 시집 말씀을 하시지요?」 아춤에 경희가 할
머니 다녀가신 뒤에 마로에서 혼자말노 「시집을 갈 썩 가더라도 하도 여러 번
드르니까 인제 도모지 실여 죽겠다」 하든 말을 시월이가 부엌에서 들었다. 지금
도 자세히는 들니지 안으나 그런 말을 하는 것 갓혔다. 그리셔 자근 아씨의 얼
골이 저러케 불냥하거니 하였다. 경희는 우셨다. 그리고 바누질을 붓들며 이야
기 쫓출 연속한다. 안마루에서는 如前히 두 마님은 서로 술도 전하며 담비도
잡수면서 경희의 말을 한다.

「이기가 바누질을 다 하요?」

「네 바누질도 곳잘 하요 남정의 윗웃은 못하지요마는 제 웃은 썩미여 입지
요」

「아이구 저런 어느 틈에 바누질을 다 비웠셔요 양복 속적삼을 다 하요 학
싱도 바누질을 다 하나요」

이 마님은 果然 女學生은 바누를 쥐울 줄도 모로는 줄 알았다. 더구나 경희
와 갓히 셔울노 日本으로 쏘다니며 공부 한다 하고 덜녕하고 썩 사니 갓흔 학
싱이 제 웃을 썩미여 입는다 하는 말에 놀났다. 그러나 역시 속으로난 그 바누
질 썩이 오작할가 하였다. 김부인은 딸의 칭찬갓흐나 못난 말에 마지 못하야
더답한다.

「어디 바누질이나 제법 안져서 비홀 식나 잇나요 그러도 차々 철이 나면 쯔

연히 의사가 나느 보아요 가라치지 아니 히도 제 절노 꾸미게 되던구면요 어
려운 공부를 하면 의사가 턱우나보아요」

김부인은 말쑥을 쓴엇다가 다시 말을 한다. 이 마님 귀에는 쏙 거짓말갓다.

「양복 속적삼은 작년 여름에 南大門 밧게서 日女가 와서 가라치든 지봉틀
바누질 講習所에를 날마다々니며 비왓지요 제 족하들의 洋服도 히서 입히고
帽子도 히서 씌우고 또 제 오라비 여름 양복쓰지 히셔요 日語를 아니까 선싱
고 친히게 되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라쳐 주지 안는 것쓰지 다 가라쳐 주더리
요. 낮에는 비화가지고 와서는 밤이면 쏙 열두시 식로 한 시쓰지 안져서 비운
거슬 보고 그더로 그리고 모다 치수를 적고 히셔요 나는 그게 무엇인가 히엇
더니 나중에 지봉틀 회사 감독이 와서 그리는데 「이제쓰지 일어로만 혼 거시
야셔 부인네들 가라치기에 불편히더니 짜님의 민든 칙으로 펍 유익하게 쓰겟
습니다」 히는 말에 그런 것인줄 알앗셔요 촌 가라치면 어디든지 그러케 쓸데가
잇던구면요 그 쏙 아니라 그 점잔은 일본 사름들의게도 엇지 존더를 밧는지
몰나요 기 익가 왓단 말을 어디셔 드렸는지 감독이 일부러 일전에 쏙 차자왓
셔요 일본서 졸업하고는 괴어히 즈기 회사의 일을 보아 달나고 히더리요 처음
에는 月給⁴⁾ 一千五百兩은 쉽디요 차々 올느면 三年안에 二千五百兩은 밧는다
는디요 다른 녀즈는 제일 만흔 거시 七百 원냥이라는데 아마 기익는 일본까지
가셔 공부혼 짜닭인가 보아요 저것도 기 익가 지봉틀에 한 것입니다」

히며 마즌 편 벽에 유리에 늘어 걸어 노은, 압헤 물이 흘느고 뒤에 나무가
총총흔 村 景致^{경치}를 턱으로 가라친다. 경희의 어머니는 결코 여긔쓰지 딸의
말을 할냐고 한 거시 아니엿다. 혼거시 自然 月給 말쓰지 히게 된거슨 不知中에
여긔쓰지 말히엿다. 김부인은 다른 부인네들 보다 더구나 이 사돈 마님보다는
훨신 開明을 혼 婦人이다. 根本 性品도 결코 남의 흥을 보는 부인은 아니엿고
혹 부인네들이 모혀 녀학싱의 못된 점을 쓰니여 흥을 보던지 히면 그러치 안타
고쓰지 반더를 혼 적도 만히니 이거슨 더기 즈기 딸 경희를 몹시 괴특히 아는
씨닭으로 녀학싱은 바누질을 못흔다든가, 빨너를 아니 혼다든가, 살님살이를

4) ‘月給’의 오식.

할 줄 몰는다고 하는 말이 모다 일부러 흉을 민드려 말하거니 헛다. 그러나 공부히서 무엇하느니 왜 경희가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하느니 졸업을 하면 무어세 쓰느니는 역시 김부인도 다른 부인과 갓히 몰랐다. 혹 여러 부인이 모혀서 싸님은 그러케 공부를 식혀서 무엇하나요? 질문을 하면 「누가 아나요 이 세상에는 계집이라도 비화야 혼다니까요」 이러케 죽고 아들에게 늘 드리오든 말노 어물々々 더답을 할 뿐이였다. 김부인은 과연 알았다. 공부를 만히 할수록 존디를 밧고 월급도 만히 밧는 거슬 알았다. 그러케 번질-흔 양복을 입고 금시계줄을 느린 점잔은 감독이 조고마흔 녀자를 일부러 차자와서 절을 수업시하는 것이라든지, 종일, 한 달 三十日을 악을 쓰고 속을 터이는 普通學校 教師는 만하야 六百 시무냥이고 普通보통 五百兩인디 「천々히 놀면서 一年에 평풍 두 짝만이라도 잘만 노하 주시면 月給은 꼭 四十圓식은 되리지요」 하느 말에 김부인은 과연 공부라는 거슨 꼭 히야할 것이고 하면 조금 하느 것보다 일본까지 보니서 식혀야만 할 거슬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경희가 「공부를 하면 만히 히야겟셔요 그리야 남의게 존디를 밧을 뿐외라 저도 사름 노릇을 할 것 갓히요」 하든 말이 아마 이리서 그릇던가 보다 하였다. 김부인은 인제부터는 의심업시 확실히 죽고 아들이 경희를 왜 일본까지 보나라고 익를 쓰던 것 지금 世上에는 女子도 男子와 갓히 만히 가라쳐야 할 거슬 알았다. 그리서 김부인은 이제까지 누가 「싸님은 공부를 그러케 식혀 무엇 하니까?」 무르면 등에서 땀이 흐르고 얼굴이 벌거케 취히지며 이럴 썩마다 아들만 업스면 곳이라도 데려다가 시집을 보니고 심흔 생각도 만하섯스나 지금 생각하니 아달이 뒤에 잇서々 죽고 부부가 경희를 데려다 시집을 보니지 못하게 혼 거시 多幸하게 生覺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누가 못든지 간에 녀즈도 공부를 식혀야 의사가 나서 가라치지 아니흔 바누질도 할 줄 알고 일본까지 보니여 공부를 만히 식혀야 존디를 밧을 것을 분명히 설명까지라도 할 것 갓다. 그리서 오날도 사돈마님 압해서도 부지중 여긔까지 말을 하느 金夫人의 態度태도는 조금도 躊躇주저하느 빗도 업고 그 얼굴에는 깃뿔이 가득하고 그 눈에는 「나는 이러흔 영광을 누리고 이러흔 자미를 본다」 하느 表情이 가득하다.

사돈 마님은 半信半疑반신반의로 엇더튼 쏏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묻논 거짓말

노 드를 썬만 아니라, 속으로 「너는 아마 큰 계집이를 버려 노코 인제 시집 보
 널 것이 걱정이니까 저러케 업는 칭찬을 하나보구나」 하며 이야기 하는 金夫人
 의 눈이며 입을 노려보고 안졌다. 그러나 이야기가 점점 기러갈수록 그럴 듯하
 다. 더구나 監督감독이 왓드란 말이며 尊待를 호드란 것이며 사니도 여간흔 郡主
 事군주사씨는 바랄 수도 업는 月給을 二千兩까지 주겟드란 말을 드를 써는 설마
 저러케까지 그것말을 할가 하는 생각이 난다. 사돈 마님은 아직도 참말노는 알
 고 심흐지 안으나 엇썬지 김부인의 말이 그것말 갖지는 아니 하다. 또 벽에 걸
 린 繡도 確實이 自己 눈으로 볼 썬 아니라 쉴 시 업시 박휘굴느는 裁縫재봉틀 소
 리가 當場 自己 귀에 들린다. 마님 믿음은 도모지 이상하다. 무슨 큰 失敗나 혼
 짓도 갖다. 良心은 스스로 自服자복 호였다. 「니가 녀학싱을 잘못 알아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갖히 계집이도 공부를 식혀야겟다. 어서 우리 집에 가져⁵⁾ 니우식히
 든 孫女 딸들을 니일붓히 學校에 보니아겟다고 꼭 결심을 히다. 눈압히 암
 울々々 히오고 귀가 썽－한다. 아모 말 업시 눈만 썸먹々々 호고 안졌다. 뒤것
 호로 부러 두러오는 시원흔 바람 중에는 절믄 우숨소리가 사접시를 씨트릴만
 치 자미스럽게 썽혀 드러온다.

二.

「이 더운디 자근 아씨 무얼 그러케 호심니까?」

마루 썩헤 썽 함지를 힘 업시 노흐며 땀을 씻는다. 얼굴은 억죽々々 열고 머
 리는 평양머리를 히셔 언고 알늑달늑흔 면주 수건을 아므러케나 썸 나이가 혼
 四十 假令가령된 썽장사는 의례히 하로에 한번式 이 집을 들린다.

「심々 하니까 작난 좀 호오」

瓊姬경희는 압치마를 치고 마로 썩헤 셔々 섯투른 칼질노 파를 쓴다.

「어느 틈에 김치 당그는 거슬 다 비호섯셔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자근 아
 씨는 도모지 노으시는 거슬 못 보았습니다. 冊을 보시지 안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누질을 아니 호시면 저러케 김치를 당그시고……」

5) 원문대로

「녀편네가 녀편니 할 일을 하는 것이 무어이 그리 신통할 것 잇쇼」

「자근 아씨 갓흔이나 그러치 어느 女學生이 그러케 먹음을 먹는 이가 잇나 요」

썩장사는 무릅을 치며 경희의 압력으로 밧삭 앓는다. 경희는 빙긋—시 웃는다.

「그건 썩장사가 잘못 안 것이지 女學生은 사름 아니요 女學生도 옷을 입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 것 아니요?」

「아이구 그러게 말이지요 누가 아니리오 그러나 자근 아씨갓치 그러케 아는 녀학생이 어디 잇셔요?」

「자 稱讚^{칭찬} 만히 밧엇스니 썩이나 한 시무냥아치 살까!」

「아이구 어멈을 저러케 아시네. 썩 파러 먹을냐고 그런 거슨 아니야요」

변덕이 디룩々々⁶⁾ 혼 두 뺨의 살이 축 쳐진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잘못 아논고 나 하는 怨望^{원망}으로 두둑흔 입설이 썩죽흔다. 경희는 꺾눈으로 보았다. 그 먹음을 짐작했었다.

「아니요 부러 그러치 稱讚을 밧으니까 조와셔……」

「아니야요 稱讚이 아니라 정말이야요」 다시 경다이 밧삭 안지며 허허…… 너털우습을 한 판 니넌다. 「정말 몇히를 두고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자근 아씨처럼 낮잠 한 번도 지무시지 안코 꼭 무엇을 하시느 아씨는 처음 보앗셔요」

「썩 장사 오기 前에 자고 썩 장사가 가면 또 자는 걸 보지를 못했지」

「또 저러케 우썬 말슴을 하시네. 썩 장사가 아모 썩나 아참에도 다녀가고 낮에도 다녀가고 저녁 썩도 다녀가지 學校에 다니는 學生갓치 時間을 맞쳐서 다니나요! 응? 그러치 안쇼?」 하며 툇마루에서 밧돌에 풀 깔고 잇는 시월이를 본다. 시월이는 「그리요. 어디가 압흐시기 前에는 한번도 낮잠 지무시는 일 업셔요」

「여보 썩장사 썩이 다 쉬면 엇지 할나고 이러케 한가이 안져셔 이야기를 호오」

「아니 관계치 안아요」

6) ‘怨望’의 오기.

썩 장사의 말소리는 아모 힘이 업다. 썩 장사는 이 지근 아씨가 「그리셔 엇 져쇼」 하며 밧아만 주면 이야기 할 것이 만하였다. 저의 집 썩 방아 켜튼 일군에게서 드른 요시 新聞에 어느 녀학성이 學校 간다고 나가셔는 몇칠 아니 드려오는 고로 수식을 히보니까 어느 사너에게 뵈임을 밧아서 첩이 되엿드란 말이며, 어느 집에는 며누리를 녀학성을 엇어 왓더니 버션 깃는 더 올도 차질 줄을 몰나 모다 썩드로 더엿드란 말, 밥을 히엿는 더 반은 티엿드란 말, 날마다 四方으로 쏘다니며 平均 한 마더식 들어 온 녀학성의 흠담을 히라면 不知其數이였다. 그리셔 이러케 신이 나서 무릅을 치고 밧삭 드러 안젼썩스나, 경희의 말 더답이 너머 冷정히고 점잔음으로 썩 장사의 속에서 썩쳐 오르든 거시 어느 듯 거품 썩지듯 썩졌다. 썩장사의 므음은 무어슬 일흔 것 갓치 空然히 셔운하다. 썩 바구미를 들고 이러실가 말가 하나 엇썩지 썩 이러실 수도 업다. 그리셔 썩 바구미를 두 손으로 놀는 치로 안져서 모른 체 히고 칼질히는 경희의 모양을 아리 위로 홀터도 보고 마루를 보며 선반 우에 언젼 소반의 수효도 세워 보고 精神 업시 얼 썩진 것 갓히 안젼다.

「흰 썩 뒗냥아치 히고 기피 썩 두냥 반어치만 너노케」

김부인은 고흔 돛자리 위에 붓치질을 히면서 두러누엇다가 썩 경희의 조와 히는 기피썩 히고 아들이 잘 먹는 흰 썩을 너노라 히고 주머니에서 돈을 쓰닌다. 썩장사는 멀간이 안젼다가 썩작 놀나 너노흐라는 썩 수효를 몇 번式 되푸리히 세워서 너노코는 뒤도 도라다 보지를 안코 썩 바구미를 이우고 나가다가 다시 이 宅을 오지 못히면 썩을 못 팔게 될 生覺을 히고 「지근 아씨 너일 썩 와요 히々々」 하며 더門을 나셔々는 큰 썩을 쉬엿다. 生三八 두루막이 고름을 달고 안젼든 경희의 오라버니 덕이며 경희며 시월이며 셔로 얼굴들을 치여다 보며 말업시 썩긋썩긋 웃는다. 경희는 속으로 깃버한다. 무어슬 엇은 것 갓다. 썩 장사가 다시는 남의 흠을 보지 아니 하리라 生覺할 썩에 큰 教育을 히 것도 갓다. 경희는 칼자루를 들고 안져서 무슨 生覺을 곱곶이 한다.

「썩 익기는 못 할 거시 업다」

얼굴에 愁色이 가득히야 실음업시 두 손갈가을 마조 잡고 안젼다가 簡單히 이 말을 히고난 다시 입을 썩 담으며 한심을 산이 썩지도록 쉬이는 한 녀인에

게는 아모도 모로는 큰 걱정과 설음이 잇는 것 갓다. 이 녀인은 僅二十年 동안 이나 이 집과 親히게 다니는 녀인이라 경희의 兄弟들은 아주머니라호고 이 女人은 경희의 兄弟를 卒기의 親족하들갓치 貴愛한다. 그리서 심々히여도 이 집으로 오고 속이 傷할 썩에도 이 집으로 와서 웃고 간다. 그런디 이 녀인의 얼굴은 항상 검은 구름이 끼우고 조흔 일을 보던지 즐거운 일을 당히던지 썩혜는 반드시 휘－한심을 쉬우는 싸코 싸인 설음의 原因을 알고 보면 누구라도 同情을 아니 할 수 업다.

이 女人은 노年⁸⁾ 과부라. 남편을 일은 後로 哀切 복통을 하다가 다만 滋味를 붓치고 樂을 삼는 거슨 千幸萬幸^{천행만행}으로 잇은 遺腹子^{유복자} 壽男이 잇슴이라. 하로 지나면 壽男이도 조금 크고 한 히 지나면 壽男이가 한 살이 는다. 겨울이면 추울가 녀름이면 더울가 밤에 자다가도 困히 자는 壽男의 투덕々々^{투덕투덕} 흔 볼기 썩을 몇번식 썩덕々々^{썩덕썩덕} 히든 世上에 둘도 업는 貴흔 아들은 어느 듯 나이 十六歲에 이르러 四方에서 婚姻히자는 말이 쓴일 시 업섯다. 壽男의 어머니는 시로이 며나리를 잇어 혼즈 滋味를 볼 것이며 남편도 업시 혼자 폐빅 बात을 生覺을 히다가 자리 속에서 눈물도 만히 흘녜다. 그러나 항여 이러케 눈물을 흘녀 貴重흔 아들의게 사위스러울가 보아 할 수 잇는 디로는 슴흙을 깃뵈으로 돌녀 싱각히고 눈물을 우슴으로 이룰냐 히엿다. 그리서 알뜰살뜰이 돈이며 辟물등속을 며누리 잇으면 줄냐고 모חת다. 唯一無二의 아들을 장가디리넌디는 쓰리는 것도 만코 보는 것도 만חת다. 그리서 며누리 션을 시어머니가 보면 아들이 가난히게 산다고 히는 고로 壽男의 어머니는 일절 中媒에게 밋기고 궁합이 맞는 것으로 만 婚姻을 定히엿다. 시 며누리를 잇고 아들과 며누리 사이에 玉과 갓흔 손녀며 金 갓흔 손子를 보아 집안이 썩들석히고 滋味가 퍼부울 거슬 날마다 想像히며 기다리든 며누리는 果然 오날의 이 한심을 쉬우게 히는 원수일다. 열넉곱에 시 집은 後로 八年이 되도록 시어머니 조고리 하나도 꾸미여서 情多히 드러보지 못흔 철천지 한을 시어머니 가슴에 잉켜준 이 며누리라. 壽男의 어머니는 本來 性品이 順히고 德스러움으로 아모조록 이 며누리를 잘 가라치고 잘 민들냐고

7) ‘손길’의 오기.

8) ‘소년’의 오기.

의도 無限이 쓰고 남 몰누게 腹腸복장도 만히 쳤다. 이러면 나홀가 저러케 하면 사름이 될가 해야 혼자 궁구도 만히 하고 타일느고 가라치기도 數업시 하였스나 어제가 오날갓고 니일도 일반이라. 바늘을 쥐어주면 곳 졸고 안젓고 밥을 하라하면 죽은 쭈어 노으나 거괴다가 나이가 먹어 갈수록 맛음만 엉뚱히 가는 거슨 더구나 사름을 기가 막키게 한다. 이러하니 썩로 속이 傷하고 날노 기가 막히는 壽男의 어머니는 이 집에 올 썩마다 이 집 며누리가 시어머니 저구리를 얹전히 하는 거슬 보면 나는 이 며누리 손에 저러케 저구리 한아도 엇어 입어 보지를 못하나 하며 한심이 나오고 경희의 부즈런흔 거슬 볼 썩에 나는 왜 저런 민첩흔 며누리를 엇지 못하였는가 하며 한심을 쉬우는 거슨 즈연흔 人情이리라. 그럼으로 이러케 멀건이 안저서 경희의 김치 당그는 양을 보며 썩 썩장사가 한참 썩들고 간 뒤에 간단흔 이 말을 하는 썩헤 한심을 쉬우는 그 얼굴은 참아 볼 수가 업다. 머리를 숙이고 골몰이 칼질하든 경희는 임의 이 아주머니의 설음의 原因을 아는 터이라 그 한심소리가 들니자 윈 몸이 썩르르하도록 同情이 간다. 경희는 이 刺戟자극을 밧는 同時에 이와 갓치 朝鮮 안에 여러 不幸한 家庭의 形便이 方今 제 눈압헤 보이는 것 긋하다.9) 힘 잇게 칼자로도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무슨 큰 決心이나 하는 것 갓다. 경희는 긋게 盟誓해서 하였다. 「내가 가질 家庭은 決코 그런 家庭이 아니다. 나 썩 아니라 내 子孫, 내 親舊, 내 門人들의 밋들 家庭도 決코 이러케 不幸하게 하지 안는다. 오냐 내가 썩 한다」 하였다. 경희는 썩충 썩다. 안 부억에서 썩을 썩썩 흘니며 풀 썩는 시월이를 썩러간다.

「애 나하고 하자. 붓쓰막에 올라 안저서 풀막덥이로 절냐? 아궁이 압헤 안저서 썩을냐? 엇던 거슬 하였스면 좃겟냐? 너 하라는 디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아이구 고만 두셔요, 더운디」

시월이는 더운디 혼자 풀을 저면서 불을 썩너라고 썩썩 하든 中이다.

「아이구 이년의 八字」 恨歎한탄을 하며 눈을 멀건이 쓰고 밀집을 썩러 썩고

9) 원문대로

안졌든 씨라, 자근 아씨의 이 말 흔 마더는 더운 中에 바람 갖고 괴로움에 우습
일다. 시월이는 속으로 「저녁 진지에는 자근 아씨의 질기시는 옥수수를 어디
가서 맛있는 거슬 엇어다가 써서 되려야겠다」 하였다. 마지 못하야.

「그러면 불을 켜셔요 제가 풀은 저울 거시니……」

「그리 어려운 거슨 오리동안 졸업흔 네가 히라」

경희는 불을 켜우고 시월이는 풀을 젖는다. 위에서는 「푸々」「부굴부굴」 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집의 탁々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東京 音樂學校 演奏會席
연주회에서 듯던 管絃樂奏관현악주 소리 갖기도 한다. 또 아궁이 저 속에서 밀집
꽃헤 불이 덩기며 漸々 불빛이 強하고 번지는 同時에 차차 아궁이까지 갖가와
지자 또 漸々 불꽃이 弱히져 가는 것은 마치 피아노 저 꽃헤서 이 꽃까지 칠
씩에 봉々 하던 것이 漸々 썩々 하도록 되는 音律음률과 갖히 보힌다. 熱心으로
젖고 안진 시월이는 이러흔 滋味스러운 거슬 몰누겟고나 하고 제 생각을 한다
가 저는 조금이라도 이 妙한 美感을 늦길 줄 아는 거시 얼마큼 幸福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보다 몇 十百倍 妙흔 美感을 늦기는 者가 잇스려니 생각
할 썩에 제 눈을 썩여 바리고도 십고 제 머리를 썩되려 바치고도 십다. 썩건
불꽃이 별안간 파란 빛으로 變한다. 아—이것도 사름인가, 밥이 맛갑다 하였다.
경희는 不知中 「滋味도 스럽다」 하였다.

「더체 자근 아씨는 별것도 다 자미있다고 하십니다. 썩니하면 썩국물 흐르
는 것도 滋味있다 하시고, 마로 걸너질을 치시면, 아직 안친 한 편 쪽 마루의
썩연 거시 보기 滋味있다 하시고, 마당을 쓸면 툇을 만하지는 것이 滋味있다 하
시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滋味있다고 하실는지 뒤간에 구택이 썩는 것은 滋味
있지 안으셔요?」

경희는 속으로 「오냐 물론 그것까지 滋味있게 보여야 할 거실다. 그러나 너
눈은 언제나 그러케 밝아지고 내 머리는 어느 썩나 거기까지 發達발달될는지 불
상하고 寒心스럽다」 하였다.

「애 그런디 말썬이 나왔스니까 말이다. 썩니 언제 하니?」

「왜요? 모리는 히야겟셔요」

「그러면 저녁썩 늦지?」

「아마 느낄 걸이요!」

「일즉 쏫이 나더라도 기천에 겨 살아라. 그러면 짓는방 아씨하고 저녁히놀 터이니 늦게 드리와서 잡수어라. 니 손으로 한 밥맛이 엇던가 보아라 히々々」

시월이도 갓치 웃는다. 엇제면 사름이 저러케 人情스러운가 한다. 누가 나 먹으라고 단 참외나 주엇스면 저 자근 아씨 갓다 디리게 속으로 혼자말을 한다. 果然 시월이는 이러케 고마운 소리를 드를 썩마다 惶悚황송스러워 엇지 할 수가 업다. 그리셔 입이 잇스나 엇더케 말할 줄도 모르고 다만 자근 아씨의 잘 먹는 果實은 아는지라, 제게 돈이 잇스면 사다가라도 디리고 십흐나 돈은 업슴으로 사지는 못흐되 틈々이 어디가서 옥수수며 살구는 곳잘 求하다가 디렸다. 이러케 경희와 시월이 스이는 스이가 조홀 쏘 外라 이번에 경희가 日本서 올 썩에 시월의 자식 點童점동이게는 큰 덕 익기네들보더 더 조흔 作亂작난감을 사다가 준 거슨 시월의 썩가 녹기 前까지 잇즐¹⁰⁾ 수가 업다.

「애 그런데 너와 일할 것이 쏙 하나 잇다」

「무엇이야요?」

「글세 무어시든지 내가 하자면 흐겠니?」

「암을암요 흐지요!」

「너 왜 그러케 우물 썩덩을 더럽게 히놋니」

「도모지 더러워 볼 수가 업다. 그러니 내일붓허 설음질 뒤에는 쏙 날마다 나 흐고 우물 썩덩을 치우자 너 혼자만 하라는 거슨 아니다. 그러케 흐겠니?」

「네 제가 혼자 날마다 치우지요」

「아니 나흐고 갓치 히…… 滋味스럽게 하々々」

「또 滋味요? 하々々々」

부억이 썩들석하다. 안마루에서 드르시든 경희 어머니는 또 우습이 始作되 옯군 하신다.

「아이 무어시 그리 우순지 기 익가 오면 밤낮 셋이 몰겨 다니며 웃는 소리 도모지 살न्ह히 못견디겟셔요 젊어슬 썩는 말쑥 구르는 거시 다 우습다더니 그

10) 원문대로

야말노 그런가 보아요」

壽男 어머니에게 對하야 말을 한다.

「웃는 것 바게 조흔 거시 어디 잇습니가. 덕에를 오면 산 것 갓습니다」

壽男 어머니는 또 휘…… 한심을 쉰다. 마루에 혼자 써러져 바누질흐든 것은 방 식씨는 우습 소리가 들니자 한 발에 신을 신고 한 발에 집신을 끌며 부엌 문지방을 드리시며.

「무슨 이야기요? 나도……」한다.

三.

「마누라 지무시오?」

李鐵原은 사랑에서 드러와 안방 문을 열고 경희와 김부인 지는 모기장 속으로 드러신다. 김부인은 쌈작 놀라 니러 안는다.

「왜 그러셔요 어디가 便치 안으셔요?」

「아—니, 空然히 잠이 아니 와서……」

「왜요?」

이 씨에 마로 壁에 걸닌 自鳴鐘자명종은 한 번을 썩 친다.

「두려 누어서 곰곰 생각을 흐다가 마누라호고 議論을 하러 두려 왔소!」

「무얼이요?」

「경희의 婚姻 일 말ियो. 도모지 걱정이 되어 잠이 와야지」

「나 역 그리요」

「이번 婚處^{혼처}는 꼭 늦치지를 말고 히야지. 그만한 곳 업소 그 新郎 아버지 되는 者^자고난 前^전부터 익숙히 아는 터이니까 다시 알아 볼 것도 업고 當者^{당자}도 그만 흐면 쓰지 別 兒孩 어디 잇다¹¹⁾ 長子^{장자}이니까 그 만흔 財産 다 相續^{상속}될 터이고 또 경희는 그런 大家집 맛며누리감이지……」

「글세 나도 그만한 婚處^{혼처}가 업는 줄 알지마는 제가 그러케 열길이나 썩고 싣는 거슬 엇더케 혼단 말ियो. 그러케 싣타고 흐는 거슬 抑制^{억제}체로 보니엿다

11) 원문대로.

가 나중엔 不吉한 일이나 잇스면 子息이라도 그 怨憎¹²⁾을 엇더케 듯잔 말이 오……」

「아…… 니 不吉할 일이 잇슬 까닭이 잇나 人品이 그만 하겠다. 秋收^{추수}를 數千石^{수천석} 하겠다. 그만하면 고만이지 그러면 엇더케 하잔 말이오. 계집이가 열 아홉 살이 적소?」

金夫人은 잠々이 잇다. 李鐵原은 혀를 툭々 차며 後悔를 한다.

「내가 잘못이지 계집이를 일본까지 보낸다니 계집이가 시집가기를 싣타니 그런 망칙한 일이 어디 잇서 남이 알가 보아 무섭지. 밧서 適合한 婚處를 몇 군더를 훑쳤스니 엇더케 하잔 말이야! 아이……」

「그러면 婚姻을 언제로 하잔 말이오?」

「저만 對答하면 只今이라도 곧 하지 오날도 직촉 片紙가 왔는다…… 已往 계집이라도 그만치 가라쳐 노앗스니까 넷날처럼 父母씨리로 할 수는 업고 히서 밧서 사흘씩 불너다가 타일느나 도모지 말을 드러먹어야지. 계집년이 되지 못한 固執^{고집}은 왜 그리 시운지 新郎 三寸은 귀어히 족하 며누리를 삼아야겟다고 몇 번을 그리는지 모른다……」

「그리 무엇이라고 對答하섯소?」

「글세 남이 붓그럽게 계집이더러 무러 본다나, 무엇이라나 그리지 안아도 큰 계집이를 일본까지 보냈너니 엇더니 하고 욕들을 하느디 그리서 생각히본다고 히지」

「그러면 거괴셔는 기다리겟소 그리」

「암 그제 밧서 올 正月^{정월}부터 말이 잇던 것인디 동너집 시악씨 밧고 장가 못 간다더니……」

「아이 그러면 速히 左名¹³⁾ 間 決定을 녀여겟느디 엇더케 하나 저난 귀어히 하든 工夫를 맞치기 前에는 죽여도 시집은 아니 가겟다 하느디 그리고 더구나 그런 富者 집에 가서 치마 자락 느리고 심흔 먹음은 꿈에도 업다고 한다오. 그리서 제 동생 시집 갈 썩도 제것으로 히노은 고운 옷은 모다 주엇습넌다. 비단

12) ‘怨望’의 오기.

13) ‘左右間’의 오식.

치마 속에 근심과 설음이 있너니라고 혼다오 그 말도 올킨 올어」

金夫人은 自己도 남 부럽지 안케 이제껏 富貴하게 살아왔스나 自己 남편이 절머슬 썩 放蕩탕하여서 속이 傷흔 일과 鐵原 郡守로 갓슬 썩도 쫓이 두셋식 되어 남 몰니 속이 썩든 生覺을 하고 경희가 이런 말을 할 썩마다 말은 아니 하나 속으로 짜는 네 말이 올타 혼 적이 만했다.

「아이 아니 써운 년 그리기에 게집의를 가라치면 건방져서 못 쓴다는 말이 야…… 아직 철을 물너서 그러치…… 글세 그것도 그러치 안소 오작 혼 집에서 婚姻을 썩구로 혼단 말시오 金判事 집도 우리 집 內容을 다 아는 터이니까 婚姻도 하자지 누가 썩구로 婚姻혼 집 시익씨를 데려 갈냐겄소 아니 이번에는 꼭 히야지……」

夫人의 말을 드르며 그럴 듯하게 生覺흔 李鐵原은 이 썩꾸로 婚姻혼 生覺을 하니 막음이 급작히 조려진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이번 金判事집 婚處를 늦치면 다시는 그런 門閥있고 財産잇는 婚處를 엿을 수가 업는 것 갓다. 그리서 두 말할 것 업시 이番 婚姻은 強制로라도 식힐 決心이 이러난다. 李鐵原은 벌떡 이러선다.

「게집이가 工夫는 그러케 히서 무엇히? 그만치 알앗스면 고만이지 일본은 누가 썩 보너기는 하구? 이번에는 無關너지 귀어히 그 婚處하고 히야지, 니일 썩 한번 불너다가 아니 듯거든 썩 무를 것 업시 곳 히버려야지……」

怒氣노기가 가득하다. 金夫人은 「그러케 히시요」라든지 「마시요」라든지 무어 시라고 對答할 수가 업다. 다만 실업업시 自己가 風病풍병으로 누울 썩마다 경희를 시집 보너기 전에 도라갈가 보아 아실々々흔 생각을 하며

「짜는 하나 남은 경희를 마저 내 生前에 시집을 보너 노아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겄는디」홀 뿐이다.

李鐵原은 이러시다가 다시 안지며 나직한 소리로 못는다.

「그런디 日本 보너서 버리지는 아는 貌樣이오?」

「아니요 그 前보다 더 부지런히졌셔요 아참이면 第一 몬져 이러납넨다. 그리서 마루 걸니질이며 마당이며 멀거케 치여 늦치요 그 썩인가요 썩허면 썩방아 다 썩토록 체질히주기가…… 그러게 시월이는 조와져¹⁴⁾ 죽겄다지요……」

金夫人은 果然 경희의 날마다 일하는 거슬 볼 때마다 큰 安心을 漸漸 차졌다. 그거슨 경희를 日本 보낸 後로는 남들이 非難할 때마다 입으로는 말을 아니 하니 恒常 只음으로 念慮되는 거슨 경희가 萬一에 日本까지 工夫를 갖다고 난 체를 한다든지 工夫한 威勢로 산이갓치 안저서 먹지든지 하면 그 꼴을 엿더케 남이 붓그러워 보잔 말이고 하고 未嘗不미상불 걱정이 된 거슨 어머니된 者의 딸을 사랑하는 自然한 情이라. 경희가 日本서 오든 그 잊흔날 붓혀 압치마를 치고 부엌으로 드러갈 썩에 오리간만에 쉬우러 온 딸이라 말니기는 하였스나 속으로는 큰 숨을 쉬울 만치 安心을 얻은 거시다. 경희 家族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갓히 경희의 마루 걸네질, 다락 벽장 치움시는 前부터 有名하였다. 그리서 경희가 서울 學校에 잇슬 썩 一年에 세 번式 休暇에 오면 依例의례히 다락 벽장이 속々까지 沐浴을 하게 되었다. 또 金夫人의 只음에도 경희가 치우지 안으면 아니 맛도록 되었다. 그리서 다락이 지저분하다든지 벽장이 어수선하게 되면 밧서 경희의 올날이 몇칠 아니 남은 거슬 안다. 그러고 경희가 집에 온 그 잊흔날은 경희를 보러 오는 四寸 형님들이며 할머니, 큰어머니는 한번式 열어보고 「다락, 벽장이 粉을 발났고나」 하시고 「씨긋히기도 하다」 하시며 稱讚을 하시셨다. 이거시 경희가 집에 가는 그 前날 밤부터 깃버하는 것이고 경희가 집에 온 第一의 標蹟표적이었다. 金夫人은 이번에 경희가 日本서 오면 年々 세번式 沐浴을 식혀주든 다락 벽장도 치여주지 아니 흘줄만 알았다. 그러나 경희는 如前히 집에 到着하면서 父母님의게 인스 엿줍고는 첫 번으로 다락 벽장을 열었다. 그러고 그 잊흔날 終日 치웠다. 그런데 이번 경희의 掃除소제 方法은 前과는 전혀 달느다. 前에 경희의 掃除 方法은 機械的이었다. 東쪽에 노חת든 祭器제기며 西쪽 壁에 걸넨 표주박을 썰고 문질너서는 그 노חת든 자리에 그더로 노흘 줄만 알았다. 그리서 잇던 검의줄만 업고 싸혔든 문지만 터르면 이거시 掃除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번 掃除法은 달느다. 建造的건조적이고 應用的응용적이다. 家庭學가 正학에서 비혼 秩序, 衛生學위생학에서 비혼 整理 또 圖畫 時間에 비혼 色과 色의 調和, 音樂 時間에 비혼 長短의 音律을 利用하여 只今까지의 位置를 전혀 쓰더

14) '조와서'의 오식.

고치게 된다. 磁器자기를 陶器도기 엮헤다도 노하 보고 七疊칠첩 반상을 漆器칠기에
 도 담아본다. 주발 밋헤는 주발보다 큰 사발을 밋쳐도 본다. 흰 銀정반 위로 노
 로소름흔 종골방아치도¹⁵⁾ 느려본다. 큰 항아리 다음에는 瓶甁을 논는다. 그리고
 前에는 켜컴흔 다락 속에서 몬지 니암시에 눈쌀도 썸흐렸슬 썸 外라 終日 썸을
 흘니고 掃除흐는 거슨 家族의게 드를 稱讚의 報酬보수를 밋을나 흠이엿다. 그러
 나 이번에는 이것도 달느다. 경희는 켜컴흔 속에서 제 몸이 이리저리 運動케
 되는 거시 如干 滋味스럽게 生覺지¹⁵⁾ 안앗다. 일부러 비싸루를 낫코 쥐똥을 집
 어 니암시도 맛하 보앗다. 그리고 경희가 終日 일흐는 거슨 아모 바라는 報酬도
 업다. 다만 제가 저 할 일을 흐는 것 박게 아모 것도 업다. 이러케 경희의 一動
 一靜의 内幕에는 自覺이 生기고 意識的으로 되는 同時에 外形으로 活動 할 일은
 썸로 만하진다. 그리서 경희는 할 일이 만타 萬一 경희의 親흔 동모가 잇서
 경희의 할 일 中에 하나라도 히준다 흐면 비록 그 物件이 경희의 손에 잇다 흐
 더라도 그거슨 경희의 것이 아니라 동모의 것일다. 이럼으로 경희가 조흔 거슬
 갓고 십고 남보다 만히 갓고 십홀진딘 경희의 힘으로 能히 할 만한 일은 항여
 나 털썸만흔 일이라도 남더러 히달나고 할 거시 아닐다. 조금이라도 남의게 썸
 앓길 거시 아닐다. 아々 多幸일다. 경희의 녁적 다리에는 살이 썸고 팔뚝은 굴
 다. 경희는 이 살이 다 썸져서 거를 수가 업슬 썸까지 팔뚝이 힘이 업서 느려질
 썸까지 할 일이 無限일다. 경희의 가질 物件도 無數흐다. 그럼으로 낫잠을 한
 번 자고나면 그 時間 자리가 完然히 텅이 난다. 終日 일을 흐고 나면 경희는 반
 드시 조금式 자리난다. 경희의 갓는 거슨 하나式 느려간다. 경희는 이러케 아춤
 붓혀 저녁까지 엇기 爲흐야 자라갈 慾心으로 제 힘썸 일을 흐다.

李鐵原도 自己 딸의 일흐는 거슬 날마다 본다. 또 속으로 괴특히게도 역인다.
 그러나 이러케 自己 夫人에게 무러본 거슨 李鐵原도 亦是 金夫人과 갓히 경희
 를 自己 아들의 勸告에 못 익이어 日本까지 보니엿스나 恒常항상 버릴가 보아 念
 慮염려되든 거슨 事實이엿다. 그럼으로 오날 저녁에 夫婦가 안져서 婚處에 對흔
 걱정이라든지 그의 버릴가 보아 念慮흐든 거슬 安心흐는 父母의 愛情은 그 두

15) '원문대로

얼굴에 찌운 우습 속에 가득하다. 아모리흔 知友며 兄弟며 孝子인들 엇지 이 父母가 念慮하시느 念慮 깃버하시느 참 깃봄갓흐리오. 李鐵原은 婚姻하자고 할 곳이 업슬가 보아 밧씩 조엿든 ㅁ음이 조금 누구러졌다. 그러나 마루로 내려시며 마른 기침 한번을 하며 「내일은 世上 업셔도 ㅎ여야지」 ㅎ는 決心의 말은 누구의 命을 가지고라도 能히 씨티릴 수 업슬 것 가치 보힌다.

식벽 닭이 새 놀을 告한다. 까마튼 밤이 白色으로 활작 열린다. 同窓의¹⁶⁾ 障紙장지 한 편이 次々 밝아오며 모기張 ㅎ ㅅㅎ로붓혀 漸々 연두식을 물디린다. 곤히 자든 경희의 눈은 ㅅ썩웠다. 경희는 또 오날 終日의 제 일을 始作할 깃봄에 醉ㅎ야 벌썩 이러나서 방을 나신다.

四.

ㅅ는 正이 午正이라. 안마루에서는 덤심상이 버러졌다. 경희는 舍廊에서 드러온다. 시월이며 거는방 형님은 간절히 점심 먹기를 勸ㅎ나 드른 체도 아니ㅎ고 골방으로 드러시며 四方 房門을 ㅅㅅ 닷는다. 경희는 ㅎㅅㅅ긋겨 운다. 방바닥에 업디리기도 ㅎ다가 이러 안기도 ㅎ고 또 이러ㅅㅅ 壁에다 머리를 부딪친다. 기둥을 불쑥 안고 ㅅㅅ ㄸㄸ. 경희는 엇지 ㅎ 줄 몰나 ㅅㅅㅅ ㅁ인다. 경희의 조고마흔 가심은 불갓히 타온다. 걸닌 手巾 자락으로 눈물을 ㅅㅅㅅ며 이싸금 ㅎ는 말은 「아이구 엇지 ㅎ나……」 할 뿐이다. 그러고 이 집에 잇스면 밥이 업셔지고 옷이 업셔질 터이니까 나를 어셔 다른 집으로 ㅅㅅ칠냐나 보다. ㅎ는 怨罔도 生긴다. 마치 이 넓고 넓은 世上 우에 제 조고마흔 몸을 둘 곳이 업는 것 갓치도 ㅅㅅ각난다. 이런 ㅅㅅ디업고 주제시러은 거시 왜 ㅅㅅ겨났나 ㅎ ㅅㅅ마다 ㅅㅅㅅ든 눈물은 다시 비오듯 ㅅㅅ다진다. 누가 와서 萬一 말닌다 ㅎ면 그 사름ㅎ고 ㅅㅅㅎ도 할 것 갓다. 그러고 그 사름의 머리를 한번에 ㅅㅅ아 ㅅㅅ불 것도 갓고 그 사름의 얼굴에서 피가 너물과 갓히 흐르도록 ㅅㅅㅎ 할퀴고 ㅅㅅ여트들 것도 갓다. 이러케 四方 窓이 ㅅㅅ 닷친 조고마흔 어둡침ㅅㅎ 골방 속에서 이리 부딪고 저리 부딪는 경희의 運命은 엇더ㅎ가!

16) ‘東窓의’의 오기.

경희의 압해는 只今 두 길 이 있다. 그 길은 희미히지도 안코 쏘렷흔 두 길 일 다. 한길은 쌀이 穀間곡간에 싸히고 돈이 만코 貴염도 밧고 사랑도 밧고 밧기도 쉬울 黃土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안은 坦々大路일다. 그러나 한 길에는 제 팔이 압흐도록 버리방아를 씨여야 겨오 엇어 먹게 되고 終日 쌈을 흘니고 남의 일을 해주어야 겨오 몇푼돈이라도 엇어 보게 된다. 이르는 곳마다 賤待천대뿐이오 사랑의 맛은 꿈에도 맛보지 못할 터이다. 발쑤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험흔 돌을 밧아야 한다. 그 길은 쏙 쪼러지는 絶壁도 잇고 날카로운 山頂도 잇다. 물도 건너야 흐고 언덕도 넘어야 흐고 數업셔¹⁷⁾ 꼬부러진 길이요 갈수록 險흐고 찾기 어려운 길일다. 경희의 압해 잇는 이 두 길 中에 하나를 오날 擇히야만 흐고 只今 꼭 定히야 한다. 오날 擇흔 以上에는 너일 밧글 수 업다. 只今 定흔 只음이 잇싸가 急變급변할 理도 萬無흐다. 아々 경희의 발은 이 두 길 中에 어느 길에 너노아야 할가. 이거슨 敎師가 가라칠 것도 아니고 親舊가 잇셔々 忠告흔터도 쓸터업다. 경희 제 몸이 저 갈 길을 擇히야만 그거시 오리 維支할 것이고 제 精神으로 흐 거시라야 變更이 업슬 터이다. 경희는 쏘 한 번 머리를 부딪고 「아이구 엇지흐면 조흔가!」 한다.

경희도 女子다. 더구나 朝鮮社會에서 사라온 女子다. 朝鮮 家庭의 因襲인습에 파뭇친 女子다. 女子라는 溫良柔順온량유순히야만 쓴다는 社會의 面目이고 女子의 生命은 三從之道라는 家庭의 敎育일다. 니러실냐면 壓迫압박흐라는 周圍요 움직이면 四方에서 드러오는 辱욕이다. 多情히게 손 붓잡고 忠告주는 동모의 말은 열 사람 한 입갓치 「便히게 前과 갓히 살다가 죽읍세다」 흠일다. 경희의 눈으로 는 비단옷도 보고 경희의 입으로는 藥食 煎骨전골도 먹었다. 아々 경희는 어느 길을 擇히야야 當然흐가? 엇더케 살아야만 조흔가? 마치 갈가에 탄평으로 몸을 느려 기어가든 비암의 송지를 집형이 쏏으로 조금 근디리면 느려졌든 몸이 밧썩 옥으러지며 눈방울이 더룩々々흐고 쏘죽흔 혀를 毒氣잇게 자조 너미는 貌樣갓치 이러흔 생각을 할 썩마다 경희의 몸에 미달닌 두 팔이며 느려진 두 다리가 밧썩 가슴 속으로 비속으로 옥으라 드러온다. 마치 어느 作亂감 商店에 노

17) 원문대로.

은 더가리와 몸뚱이 쏜인 作亂감잡치 된다. 그리고 十三貫의 体重이 급작이 白紙 한 장 만치 되어 바람에 날니는 것 같다. 또 머리 속은 저도 알만치 썩히고 서늘히진다. 눈도 삼작으릴 줄 몰누고 壁에 구멍이라도 쐜을 것 같다. 등에는 땀이 흠뻑 괴이고 四指는 죽은 사람과 갓히 차디 차다.

「아이구 엇지 하면 조흔가!」

경희는 병어리가 된 것 같다 아모말도 할 줄 몰누고 꼭 한마디 할 줄 아는 말은 이 말 뿐이다.

경희는 제 몸을 만져 본다. 왼 편 손목을 바른 便 손으로, 바른 便 손목을 왼 便 손으로 쥐어본다. 머리를 흔들어도 본다. 크지도 안코 조고마흔 이 몸…… 이 몸을 엇더케 서야 할가. 이 몸을 어디로 向하여야 조흔가…… 경희는 다시 제 몸을 위에서부터 아리까지 훑어본다. 이 몸에 비단 치마를 느리고 이 머리에 翡翠玉簪비취옥잠을 쏘져 볼가 大家宅 맛매누리 얼마나 威嚴위엄스러울가. 식이기 식식씨 노름이 얼마나 滋味 잇슬가? 媳父母시부모의 사랑인들 얼마나 만홀가. 只今 이러케 賤童천둥이든 몸이 父母님의게 얼마나 貴염을 밋을가. 親戚친척인들 오작 부러워하고 우러스 볼가. 잘못했었다. 아스 잘못 했었다. 왜 아버지가 「定하자」 했실 씨에 「네」 했지를 못하고 「안되요」 했나, 아스 왜 그랬나, 엇더케 할냐고 그러케 對答을 했었나! 그런 富貴를 왜 싣타고 했나, 그런 자리를 놓치면 나중에 엇지 하잔 말인가. 아버지 말씀과 갓히 苦生을 몰나 그런가 보다. 철이 아니 나셔 그런가 보다. 「나중에 後悔하리라」 했시더니 밋셔 後悔莫及후회막급인가 보다. 아스 엇지 하나 씨가 더디기 前에 只今 舍廊사랑에 나가셔 아버지 압헤 自服할가 보다. 「제가 잘못 生覺했었습니다」고 그러케 할가? 아니다. 그러케 할 터이다. 그거시 適當한 길일다. 그리고 구치 안은 工夫도 고만 둘 터이다. 가지 말나시는 日本도 또 다시 아니 가겟다. 이 길인가 보다. 이 길이 밝을 길인가 보다. 아 그러케 定하자 그러나……

「아이구, 엇지하면 도흔가……」

경희의 눈은 말뚝へ 한다. 全身이 千斤萬斤이나 되도록 무거워졌다. 머리 위에는 큰 銅鐵동철 투구를 들씨운 것 갓치 무겁다. 옥으러졌든 두 팔 두 다리는 어느덧 나와서 척 느러졌다. 도로 全身이 옥으라진다. 엇지 할냐고 그런 大胆스

러온 對答을 하였나 하고 아버지가 「게집이라는 거슨 시집가서 아들 딸 낫코 媳父母 섬기고 남편을 恭敬공경 하면 그만이니라」 하실 썩에 「그거슨 넷날 말이야요. 只今은 게집이도 사름이라 하요 사름인 以上에는 못할 거시 업다고 하요 사니와 갓히 돈도 버를 수 잇고 사니와 갓히 베풀도 할 수 잇셔요 사니 하는 거슨 무어시든지 하는 世上이야요」 하든 生覺을 하며 아버지가 담비더를 드시고 「머 엇제고 엇제. 네짜짓 게집이가 하긴 무얼히 日本가서 하라는 工夫난 아니 하고 貴흔 돈 업시고 그짜짓 엉뚱흔 소리만 비화 가지고 왓셔?」 하시든 무서운 눈을 矚目하며 몸을 흠칠한다.

果然과연 그러타. 나갓흔 거시 무얼 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흉니々는 거시 아닌가. 아々 果然 사름 노릇 하기가 쉬울 거시 아닐다. 男子와 갓히 모—든 거슬 하는 女子는 平凡흔 女子가 아닐 터이다. 四千年來의 習慣을 씨틔리고 나시는 女子는 웬만흔 學問, 如干흔 天才가 아니고셔는 될 수 업다. 나과를 時代에 巴里의 全人心을 움직이게 하든 스라이루 夫人과 갓흔 微妙미묘흔 理解力, 饒舌요설흔 雄辯 그러흔 機才흔 社會的 人物이 아니고셔는 될 수 업다. 사라셔 오루렌을 救하고 死흔에 佛蘭西를 救히닌 旣닥크 갓흔 百折不屈백절불굴의 勇進용진, 犧牲희생이 아니고셔는 될 수 업다. 達筆의 論文家, 明快흔 經濟書의 著書로 일흔이 날닌 英國女權論의 勇將 윗드 夫人과 갓흔 語論에 精勁정경하고 意志가 強固흔 者가 아니고셔는 될 수 업다. 아々 이러케 쉽지 못하다. 이만흔 實力, 이러흔 犧牲이 드러야만 되는 것이다.

경희가 이제껏 비뺏다는 學問을 톡々 터리모하도 그거슨 삼작 놀날만치 아모 것도 업다. 남이 제 압헤서 춤을 추고 노리를 하나 춤으로 조와홀 줄을 몰누고 眞情으로 우셔줄々을 몰루는 白痴¹⁸⁾갓흔 感覺을 가졌다. 한 마디 對答을 할 나면 얼굴이 벌게지고 語序를 차질 줄 몰누는 鈍舌둔설을 가졌다. 조금 苦로오면 실여, 조금 맛기만 하여도 慟哭을 하는 못된 臆病약병이 있다. 이 사름이 이리는 디로 저 사름이 저리는 디로 東風부는 디로 西風부는 디로 썰니고 싸라가도 窺칠 수 업시 衰弱쇠약흔 意志가 드러 안졌다. 이거시 사름인가, 이거슬 가진 爲人

18) ‘白痴’의 오식.

이 사람 노릇을 호잔 말인가. 이따짓 남들 다 아는 7, 8째의 學問으로, 남들도 쥐을줄 아는 三時 밥 먹을 씨 올흔 손에 숙가락 잡을 줄 아는 것쯤으로는 밧서 틀녔다. 어림도 업는 虛榮心이다. 萬一 古今 事業家의 各 婦인들이 알면 코우숨을 우술 터이다. 정말 엉뚱흔 소리다. 「아이구, 엇지호면 조흔가……」

여기까지 제몸을 反省흔 경희의 生覺에는 저를 맞며누리로 데려갈냐는 金判事 집도 싹하다. 또 저갓흔 천치가 그런 富貴흔 宅에서 데려갈냐면 고기를 숙이고 네々 小女를 밧치며 얻는 가야할 거시 當然흔 일인디 싹타고 호는 거슨 제가 生覺호여도 껏쌌흔 일々다. 그러고 아바지며 어머니며 其外 여러 親戚친척 할마니, 아자마니가 저를 볼 씨마다 시집 못 보닐가 보아 걱정들을 호시는 것이 當然흔 일인 것도 갓다.

경희는 이제까지 비나 쪽진 夫人들을 보면 밋오 불상이 生覺호였다. 「저거시 무어슬 알고 저러케 어른이 되엿나 남편에게 對흔 사랑도 몰누고 機械갓히 本能的으로만 저러케 금수와 갓히 살아가는구나 子息을 貴愛호는 거슨 밥이나 만히 먹이고 고기나 만히 먹일 줄만 알앗지 조흔 學問을 가라칠 줄은 몰누는고나 저것도 사람인가」 호는 驕慢교만한 눈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원일인지 오날은 그 夫人녀들이 모다 壯하게 보인다. 설거질호는 시월이 머리에다 비녀가 쪽 저진 거시 저보다 훨씬 나흔 것도 갓치 보인다. 담 사이로 農民의 子息들의 우는 소리가, 들니는 것도 저보다 훨씬 나흔 싹 世上 갓다. 아모리 生覺호여도 저는 저갓흔 어른이 될 수 업는 것 갓고 제 몸으로는 저와 갓흔 아희를 나을 수가 업는 것 갓다. 「저와 갓히 이러케 가기 어려운 시집을 엇지면 그러케들 만히 갓고 저와 갓히 이러케 어렵게 子息의 教育을 이리 저리 궁구호는 거슬 저러케 쉬웁게 잘들 살아가누」 生覺을 혼죽 저는 아모 것도 아니다. 그 夫人들은 自己보다 몇 十倍 낮다.

「엇더케 저러케들 쉬웁게 비나들을 쪽지게 되엿나? 엇지면 저러케 子息들을 만히 나하 가지고 구순히들 잘 사누 참 장하다.」

경희는 싱각홀사록 그녀들이 壯하다. 그러고 저는 이러케도 시집가기가 어려운 거시 도모지 異常스럽다. 「그 婦人녀들이 壯한가? 내가 壯한가? 이 婦人녀들이 사람일가? 내가 사람일가?」이 矛盾모순이 경희의 김흔 잠을 씨우는 큰 煩

悶일다. 「그러면 엇지 하여야 壯함 사름이 되나」 하는 거시 경희의 머리가 무거워지는 苦痛일다.

「아이구 엇지 하나 내가 그러케 될 줄 알아슬가……」

한 마디가 느렸다. 同時에 경희의 머리끝이 웃썩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경희의 썩썩한 얼굴, 넓적한 입 길죽한 四指의 形狀이 모다 슬어지고 조고마흔 밀집 솟혀 ㅅㅅㅅㅅ 하는 불꽃갓흔 무어시 바람에 썩잇는 것 갓다. 房만은 흑군ㅅㅅㅅㅅ하다. 不知中에 四方 窓을 열어제쳤다.

쓰거은 強한 光線이 瞥眼間별안간에 왈각 더드는 거슨 편쌔군의 兩便이 六모 방뎡이를 들고 「자……」 하며 더드는 것 갓히 ㅅㅅㅅ 놀날만치 強하게 쏘여드러 온다. 五色이 混雜한잡흔 百日紅, 活年花활련화 우으로는 連絡不絶연락부절히 호랑나비 노란 나비가 오고가고 한다. 비나무 우에 ㅅㅅ치 버금자리에는 ㅅㅅ만 식기 더 가리가 들낙나을낙하며 어미 ㅅㅅ마귀가 먹을 것 가지고 오는 거슬 기다리고 있다. 답스리 그늘 밋헤는 ㅅㅅ실기가 ㅅㅅ러져 쿨ㅅㅅ 자고 있다. 그 비는 불눅하다. ㅅㅅ타리 밋호로 ㅅㅅ뎡이 ㅅㅅ으러 다니는 어미 ㅅㅅ의 뒤로는 더여섯 마리의 병아리가 ㅅㅅㅅ ㅅㅅ라간다. 경희는 ㅅㅅㅅ진 것 갓히 ㅅㅅ간—니 안져서 보다가 몸을 일부러 ㅅㅅ지기였다.

저것! 저것은 ㅅㅅ다. 저것은 ㅅㅅ이고 저거슨 ㅅㅅ이다. 저것은 비나무다. 그리고 저기 ㅅㅅ달닌 거슨 비다. 저 하늘에 ㅅㅅ거슨 ㅅㅅ치다. 저것은 ㅅㅅ아리고 저것은 ㅅㅅ구다.

이러케 경희는 눈에 보이는 더로 그 名稱을 불너본다. ㅅㅅ헤 노힌 머리창¹⁹⁾도 ㅅㅅ져본다.²⁰⁾ 그 우에 ㅅㅅ여서 언진 ㅅㅅ주 이불도 ㅅㅅ다듬어 본다. 「그러면 내 名稱은 무어신가? 사름이지! ㅅㅅ 사름일다.」

경희는 ㅅㅅ에 걸닌 ㅅㅅ鏡에 제 몸을 비쳐여본다. 입도 버려보고 눈도 ㅅㅅ직여 본다. 팔도 드러보고 다리도 ㅅㅅ여노아 본다. 分明히 사름 ㅅㅅ樣일다. 그리고 두 러누은 ㅅㅅ실기와 ㅅㅅ뎡이 ㅅㅅ으러 다니는 ㅅㅅ과 ㅅㅅ ㅅㅅ마귀와 저를 比較히본다. 저 것들은 禽獸 卽 下等動物이라고 動物學에서 비췌다. 그러나 저와 갓치 ㅅㅅ을 입

19) '머리장'의 오식.

20) '만져본다'의 오식.

고 말을 하고 거리 다니고 손으로 일하는 거슨 萬物의 靈長인 사람이라고 비웠다. 그러면 저도 이런 貴한 사람이다.

아々 對答 잘 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도흔 옷에 生前 비불니 먹다가 죽지 안겠니?」 하실 썩에 그 무서운 아버지 압해서 平生 처음으로 벌々 썰며 對答하였다. 「아버지 顏子의 말슴에도 一簞食일단사와 一瓢飲일표음에 樂亦在낙역재 其中기중 이라는 말슴이 업습니가?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거슨 사람이 아니라 禽獸금수이지요. 버리밥이라도 제 努力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거시 사람인줄 압니다. 祖上이 버려논 밥 그거슬 그더로 밧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더로 엇어먹고 잇는 거슨 우리집 지나 一般이지요」 하였다. 그러타. 먹고 죽으면 그거슨 下等動物이다. 더구나 제 손구락 하나 움직이지 안코 祖上의 財物을 밧아가지고 제가 밧들기는 들겨 쳐노코 밧은 것도 쓸 줄 몰나 술이나 妓生에게 쓸디업시 浪費하는 사람이 아니라 禽獸와 갓히 비 쭈디리다가 죽는 富者들의 家庭에는 別々 悲慘한 일이 만타. 殆히 禽獸와 區別을 할 수도 업는 일이 만타. 그런 者는 사람의 가족을 暫間잠간 비러다가 쓴 것이지 조금도 사람이 아닐다. 저 답살이 그늘 밧헤 두러늘냐 하야도 기가 비웃고 그 자리가 앓갑다고 할 터이다.

그러타. 苦로음이 지나면 樂이 잇고 우름이 다 하면 우습이 오고 하는 거시 禽獸와 달는 사람이다. 禽獸가 能치 못하는 生覺을 하고 創造를 히너는 거시 사람이다. 사람이 버른 쌀 스람이 먹고 남은 밥 썩게기를 바라고 잇는 禽獸 주면 뚫타는 禽獸와 달는 사람은 제 힘으로 찾고 제 實力으로 엇는다. 이거슨 조금도 矛盾이 업는 사람과 禽獸와의 差別이다. 조금도 疑心업는 眞理이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女子다. 그러면 女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朝鮮 社會의 女子보다 먼저 宇宙 안 全人類의 女性이다. 李鐵原, 金夫人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如何튼 두 말할 것 업시 사람의 形狀이다. 그 形狀은 暫間 들씨운 가족 뿐 아니라 內腸의 構造도 確實히 禽獸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냐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이지 안는 險 험한 길을 찾지 안으면 누구더러 차지라 하리! 山頂에 올라서々 내려다 보는 것도 사람이 할 거시다. 오냐 이 팔은 무엇하자는 팔이고 이 다리는 어디 씨자는 다리냐?

경희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썩썩 뛰었다.

뽀뽀한 햇빛이 스르르 누그러진다. 남치마 빛갓흔 하늘빛히 油然유연히 써오른 검은 구름에 가리운다. 南風이 곱게 살々 부러 드려온다. 그 바람에는 花粉과 香氣가 싸혀 드려온다. 눈 압헤 번기가 번쩍々々 하고 억게 우으로 우뢰소리가 우루々々 한다. 조금 잇스면 여름 소년기가 쏘다질 터이다.

경희의 精神은 恍惚황홀하다. 경희의 키는 瞥眼間 飴 느러지드시 붓쩍 느러진 것 같다. 그리고目は 全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다. 그더로 폭 업디리여 合掌합장으로 祈禱기도를 올린다.

하느님! 하느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生命은 만흔 祝福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내 눈과 내 귀는 이러케 活動하지 안습니까?

하느님! 내게 無限한 光榮과 힘을 내려 주십시오.

내게 잇는 힘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賞을 주시든지 罰을 내리시든지 冥冥으로 부리시옵소서.

(『女子界』, 1918. 3)